

여성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4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 거래고객
365플러스내과의원 유정선 대표원장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살균 조명 개발 P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



- 04 **여성시대 특집**
봄의 찬란함은 고요한 사라짐 뒤에
- 16 **이달의 편지**
'오래된 제과점'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365플러스내과의원 유정선 대표원장
- 76 **코너 속 편지**
'내 온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외
-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가슴 떨리는 여행
-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양심고백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4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봄의 찬란함은 고요한
 사라짐 뒤에

신혜우
 식물학자



Eranthis byunsanensis 변산바람꽃 / 2012, 종이에 수채, 220×350

부모님과 나는 시골살이와 농사가 좋아 2년 전에 시골집 하나를 샀다. 별장처럼 쓰며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농사도 짓고 정원도 가꾼다. 그 집은 강가 외딴곳에 있는데 이웃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곳엔 사람은 없고 진돗개 두 마리만 산다. 개 주인이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서 개들만 몇 년 동안 쓸쓸하게 집을 지키고 있단다. 개 주인의 가족들이 가끔 주말에 와서 돌봐주고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밥을 챙겨주긴 하지만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니 개들은 아주 피죄죄한 몰골이다. 나는 개들이 불쌍해서 시골집에 갈 때마다 돌봐주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어미는 진도, 새끼는 백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내내 묶여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종종 산책도 시켜주었는데 첫 산책 때 개들이 너무 신나서 마구 뛰쳐나가 나는 질질 끌려다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개들과 깊은 정이 들었다.

저번 주에 시골집에 내려가니 진도가 보이지 않았다. 목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혹여 진도가 깊은 수로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되어 수로를 따라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개 주인의 가족들에게 전화하니 내가 시골집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진도가 죽었다단다. 전화 통화 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발밑을 내려다보니 작은 봄꽃들이 방긋방긋 피어나고 있었다.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지금 진도가 죽

었다는 게 허망했다. 백도와 달리 어미 개 진도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겨울 추위를 힘들어했다. 그 좋아하는 산책도 마다할 정도였다. 나는 진도에게 겨울이 가면 괜찮을 테니 따뜻한 봄날에 마음껏 산책하자 했었다. 봄에는 발도 시리지 않고 주변에 꽃이 가득 피어 냄새 맡을 것도 많으니 신날 거라며.

백도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화나무 아래 섰다. 매화나무는 겨울눈을 비집고 하얀 꽃잎을 조금씩 드러내며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겨울눈의 비늘잎을 멍하니 바라봤다. 봄에 겨울눈은 산산이 흩어진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던 겨울눈이 봄기운엔 속절없이 열리고 부서진다. 어떤 이들은 봄에 겨울눈에서 솟아나는 작은 새싹과 꽃을 보며 겨울눈이 깨어난다고도 한다. 하지만 겨울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겨울 동안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겨울눈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끝이 있다. 새로운 생명은 그 자리를 채운다. 나는 식물을 공부하면서 그 진실을 언제나 마주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관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에서 반복되는 사라짐의 진리와 과정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사라짐에 익숙해지거나 슬프지 않은 건 아니다. 매년 봄에 꽃이 피는 걸 알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은 꽃의 탄생에 설레고 감탄하는 것처럼, 알면서

도 사라짐은 슬프고 태어남은 감동적이다.

나무는 작년 여름과 가을 동안 내년에 피워낼 잎과 꽃을 아주 작게 만들고 여러 겹의 비늘잎으로 꼼꼼히 감싸 겨울눈을 완성한다. 어린잎과 꽃이 얼지 않도록 바깥쪽 비늘잎에 털을 달기도 하고 비늘잎 사이마다 진득한 진액을 넣기도 한다. 겨울눈은 한두 계절을 앞서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겨우내 나뭇가지 곳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봄엔 미련 없이 떠난다. 속에 있던 어린잎과 꽃이 햇빛을 보고 넓게 펼쳐지려면 비늘잎들은 나무에서 떠나야 한다. 풀은 풀대로 겨울을 준비한다. 한두 해 만에 씨앗을 완성하고 죽거나, 부지런히 영양분을 뿌리에 축적하며 내년 봄을 준비한다. 풀은 겨울 추위가 다가오면 잎과 줄기를 미련 없이 버린다. 땅 위에 있던 것들은 사그라들어 죽고 사라진다. 봄이 오면 새싹을 피워올리며 꽃, 열매, 씨앗을 맺는 과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골집에 가기 전에 학생들과 식물 수업을 하면서 겨울눈을 잘라보았었다. 겨울눈은 두 계절을 앞서 이미 새 생명을 준비해 두었기에 겨울눈을 잘라보면 내년엔 피어날 잎과 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겹의 비늘잎을 헤집고 중간에서 아주 작고 어린잎이 튀어나왔을 때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작고 돌돌 말렸어도 잎자루와 잎맥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어있는 모습을 돋보기로 관찰하며 학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산수국
2015, 종이에 수채, 460×460

생들은 계속 감탄했다. 그러나 어린잎을 보호하던 비늘잎에 감탄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잎과 꽃의 탄생과 함께 사라지는 겨울눈의 비늘잎들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비늘잎들이 있었기에

긴 겨울 동안 어린잎과 꽃은 보호받고 탄생할 수 있었다. 비늘잎은 사라지지만 중요한 흔적을 남긴다. 나무의 잔가지들을 관찰해보면 띄엄띄엄 여러 개의 고리 모양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비늘잎들이 붙어있던 자리다. 식물학자들은 나뭇가지에 남은 고리 모양을 보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가지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리 모양과 고리 모양 사이, 즉 겨울눈과 겨울눈 사이가 한 해 동안 자란 가지이기 때문이다. 간격이 멀다면 나무는 그해에 많이 자란 것이고, 가깝다면 좋지 않은 기후를 만나 조금만 성장한 것이다. 나무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고리 모양으로 겨울눈을 기억한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드디어 산책하기 좋은 따뜻한 날을 맞이했다며 신나게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개들의 이름을 불렀다. 진도가 죽어 흙 속에 묻힌 줄도 모르고. 날이 풀려 땅이 녹고 흙은 포근해졌는데 그 흙 속에 진도가 묻혔다는 게 야속하다. 그런 이유로 흙이 녹길 기다린 게 아닌데, 봄날 따뜻한 흙 위를 뛰어다닐 진도의 모습을 기다렸던 건데 말이다. 진도가 묻힌 자리 위에 떨어진 비늘잎들을 본다. 이런저런 기억들이 떠오른다. 무덤 주변에 솟아난 작은 봄꽃들은 천천히 진도가 묻힌 흙 위를 덮을 것이다. 어미가 죽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도는 꼬리를 흔들며 나와 무덤 주위를 뱅뱅 돈다.

뜻밖의 선물



[9387] 요즘 봄동 비빔밥이 핫하다 해서 저도 봄동을 사려고 했는데 손님이 시장에서 샀다고 속이 노란 꽃다발 같은 봄동을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겉절이 잘해 먹었어요.

[1120] 저희 부부가 식당 할 때 제 생일 챙기는 일도 사치였는데 식당 일 끝내고 집에 오니 중학생이던 두 딸이 소고기 5천 원어치 사서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어서 지금도 잊지 않아요.

[5969] 34년 전 논산훈련소 행군 전 여자친구가 발바닥 물집 안 잡히라고 스타킹 한 박스 보내줘서 우리 세대 모두 신고 행군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9966] 급전이 필요해서 다니는 직장에서 100만 원 가불 받았었는데요. 월급날 보니 차감이 안 되어 있어서 사장님께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도 핑 돌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4234] 10년 전쯤 학습지 교사를 할 때 유치원 회원이 가장 아끼던 스티커를 붙여다 붙여 줘서 세수할 때도 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한테는 가장 아끼던 보물이었을 텐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 | |
|------------------|---------------------|
| 12 오래된 제과점 | 37 몇 달 동안의 마음고생 |
| 15 식탁 위 작은 초 | 40 어르신들의 수호천사가 될래요 |
| 20 택시 운전 시작한 어머니 | 43 제대한 아들이 보내준 가족여행 |
| 23 명품 가방을 사드렸더니 | 48 슈퍼에 온 손님 |
| 26 시간 속에서 찌싹해진 나 | 51 탈출에 실패한 거북이 |
| 28 여성시대와 한 약속 | 55 아들의 변심 |
| 31 여기 사람 있어요 | 55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오래된 제과점

서효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며 칠 전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오래된 제과점에 다녀왔어요. 50년 넘게 대를 이어 운영 중인 ‘풍차 제과점’이에요. 지금 이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제 어릴 적 동네 친구랍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속에 동네 풍경은 참 많이도 변했더군요.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카페 같은 대형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반면 친구네 제과점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화려하지 않은 빵들로 채워져 있었죠. 혹시 매출에 타격은 없을까 걱정돼서 슬쩍 물어보니 친구는 “오래된 단골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현상 유지는 잘하고 있어”라며 웃더군요.

가게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빈티지하고 앤틱한 의자

와 테이블,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올드 팝송까지. 다행히 이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은 학생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인테리어를 그대로 간직한 원목 진열장과 매대 위에는 요즘 보기 힘든 빵들이 가득했어요. 상투 과자, 야채빵, 맘모스빵, 공갈빵, 누룽지 파이, 사라다빵, 햄버거, 전병, 옥수수식빵... 단골손님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 멀리서도 찾아온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에도 빵을 한가득 사 가는 손님들이 꽤 많았는데요. 친구는 고맙다며 덤을 얹어주고 학생들이 오면 맛보라며 또 하나씩 챙겨주더라고요. 저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을까 싶었지만 착한 가격에도 가게를 오래 유지하는 게 친구의 그런 넉넉한 인심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릴 적엔 소문난 빵순이었어요. 친구 오빠랑 결혼하면 빵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었죠. 학창 시절 운동회 날이면 친구 아버지가 커다란 비닐봉지에 카스테라, 크림빵, 단팥빵, 우유를 한가득 담아 오셔서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며 주시곤 했어요. 그때 먹었던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얼마나 맛있던지 아직도 최고의 맛으로 기억합니다. 빵집 친구를 둔 덕에 학교 마치면 참새 방앗간처럼 그곳을 드나들며 윈 없이 빵을 먹었네요.

초등학생 때 엄마 생신 선물로 케이크를 사려고 친구네 갔던 날도 생각나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빈털터리가 된 저를 보고 친구 아버지는 흔쾌히 작은 모카 케이크를 포장해 주셨어요. 그 시절 케이크는 생일이나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는 비싼 음식이었는데 얼마나 고맙



던지요. 친구 아버지는 평소에도 병원이나 노인정, 아동 보육 시설, 다문화 가정 등에 빵 나눔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때 친구 손잡고 제빵 봉사 활동을 함께했던 추억이 많습니다.

지금 제 친구는 몸에 지방이 있어 힘들 텐데도 쉬지 않고 제과점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해 오신 일을 잘 이어서 하고 싶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빵을 굽고 봉사도 계속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친구가 제빵 봉사를 나가는 날에는 꼭 참여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친구야, 우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게 잘살자.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Letter 02

식탁 위 작은 초

이정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 리 집 식탁 한가운데에는 늘 작은 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컵에 담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향초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식용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보다가 세일 코너에서 무심코 집어 든 물건이었지요. 향도 특별하지 않았고 색도 무난한 아이보리였습니다. 그저 식탁이 조금 허전해 보여 올려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초가 우리 가족의 '신호'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무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이야기를 쏟아낼 아이였는데 문 닫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남편 역시 퇴근 후 말수가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건드리면 더 날카로워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하루 종일 집안일과 일거리로 지쳐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에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젓가락 소리만 날 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언가를 켜고 싶었습니다. 라이터 소리가 짧게 튀고 심지에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빛은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괜히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불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아이는 초를 한 번 힐끗 보더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좀… 별로였어.”

그 한마디가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오해가 생긴 일, 발표를 망친 일, 괜히 혼난 것 같은 기분. 말끝은 자꾸 흐려졌지만 우리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보류되었다는 것, 애써 준비한 시간이 허무해졌다는 것.

저도 그제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서운했던 일,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감.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초가 절반쯤 타들어 갈 무렵 집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꽃은 조용히 흔들리며 우리 대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복잡한 날 먼저 초에 불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먼저 라이터를 찾았습니다. 시험을 기대만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점수부터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초를 보며 말했습니다.

“속상했겠다.”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응, 줌~”

그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것ですよ.

남편도 어느 밤 말없이 초에 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야근이 이어지고 몸이 지친 날이었습니니다. 우리는 그날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했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오셨습니다.

초는 늘 끝이 있습니다. 심지가 짧아지고 유리컵 안쪽에 그 울음이 남습니다. 저는 다 탄 초를 치우며 생각합니다. 오늘 의 고민도 이렇게 조금은 줄어들었을까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 옆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종이컵에 쓴 짧은 메모, 남편이 출장지에서 사 온 작은 돌멩이, 제가 적어둔 짧은 문장 하나. 식탁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기록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초 켜면 말하기가 조금 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불빛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질까요. 아마도 불꽃이 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강한 조명 아래에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작은 불빛 아래에서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조용히 꺼내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꼭 힘든 날이 아니어도 초를 켜곤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날에도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하고 묻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는 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회사 동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동네에서 만난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이며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가끔 초가 꺼진 뒤에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을 때가 있

습니다. 남은 온기가 유리컵에 스며 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결국 이렇게 작은 온기를 나누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밖에서는 각자 다른 하루를 살다가도 이 식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한 팀이 됩니다.

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아마 내일도 누군가 먼저 초에 불을 붙일지 모릅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요. 속상해서일 수도 있고 기뻐서일 수도 있고 그냥 괜히 초를 켜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식탁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집의 밤을 밝히고 우리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거창한 약속도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지만 그 몇 분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초는 늘 다 타버리지만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이 남긴 온기처럼 우리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식탁 위 초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불을 붙일지 모른 채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작은 불빛이 또 한 번 우리 하루를 다정하게 감싸줄 거라는 것ですよ.

Letter 03

택시 운전 시작한 어머니

김수현 |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길



서른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된 아
들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 뒤 어머니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말렸습니다.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 키워봤으니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조금 움직여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일을 나가시던 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
습니다. 밥을 미리 지어놓고 설거지를 해두고는 괜히 집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셨습니다.

그러고는 택시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셨죠. 시동을 걸기까지의 그 짧은 망설임이 지켜보는 제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럽고 차는 밀리고 와이퍼는 설 새 없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뒷좌석 손님은 계속 한숨을 쉬며 “이 길 맞아요? 왜 이렇게 느려요?” 짜증 섞인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하며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손님은 요금을 건네며 이렇게 쏘아붙였다네요.

“아주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겠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도 나지 않고 변명도 나오지 않고 그저 가슴이 조금 답답하셨다네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은 다들 예민하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던 건지, 그저 멍하니 계셨던 건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조용한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위로가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기로 마음먹었기에 강해진 사람이라는 걸요.

운전석에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면 덜 외롭다”는 말씀처럼 ‘여성시대’는 어머니의 하루를 함께하는 조용한 동승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혹은 손님을 기다리는 골목에서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워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다 손이 멈췄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라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한 일이야. 해지기 전까지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답이 비 오는 도로 위에서 아무 말 못 하셨던 그날의 침묵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나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셨다는 걸 아들은 이제야 압니다. 울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람. 그분이 제 어머니라서 저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이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 들린다면 아주 잠깐만 차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비 오는 도로 위에서도 끝내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ですよ.

해 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루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Letter 04

명품 가방을 사드렸더니

애청자



나는 해외 고가 브랜드를 지칭하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다. 명품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본 적도 없다. 면세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층을 지나간 적은 있지만 그건 그냥 구경이었고 경험이라 부르기엔 너무 얇았다. 말하자면 나는 그 세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꼭 엄마에게 명품 가방 하나를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엄마는 늘 말한다. 자기는 가방 욕심이 없다고, 있어도 안 든다고. 그런데 나는 안다. 예전에 명품은 아니지만 백화점에서 파는 한 브랜드 가방을 선물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그 표정을 분명히 기억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괜히 힘주고 나가야 하는 자리도 있고 모



임에서 남들 이야기 들으며 혼자 조용히 기가 죽는 순간도 있지 않나. 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엄마는 늘 고생만 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 누려본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걸렸다. 말로 다 하자면 길지만 그냥 계속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사줄 수 있는 여건과 사주고 싶은 때가 왔다. 어제 마음먹고 엄마께 드릴 가방을 샀다. 선물로 건

났다.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격렬했다. 엄마는 기겁하며 환불하라고 했다.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 화가 난 얼굴이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다니냐~ 미쳤냐~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냐고~’

가격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말 안 하면 더 난리일 것 같아 결국 말했고 그 순간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엄마는 잠을 못 잤다고 했다.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가방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계속 환불 하러 가자고 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 말들이 이상하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이 가방값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들도 분명 있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당연한 일처럼 해준 사람인데 그에 비해 이 정도 선물에 저렇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내가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엄마도 기쁘고 아무 부담 없이 받았을까. 선물을 했는데 슬펐다.

나는 늘 적당히 별면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내 삶의 모토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조금만이라도 더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가 내가 사주는 고가의 선물을 죄책감 없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성공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Letter 05

시간 속에서 씩씩해진 나

애청자



나의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책 읽는 사람을 지정할 때 선생님께서 그날의 날짜로 학생을 지목하셨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4번이었다. 4일, 14일, 24일이면 등교 하는 날이 두려웠다. 4일이면 선생님이 어김없이 “오늘 4일이 지? 4번 일어나서 15페이지 읽어라” 하시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어책을 읽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야야~ 재 봐. 떨다가 책 떨어뜨리 겠다” 그럴 정도로 나는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랬던 내가 결혼 후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다. 나는 생존 하기 위해 ‘강한 엄마’가 되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산이 만 원입니다~ 오

늘이 마지막 세일입니다~” 하는 멘트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 너 00 아니니? 맞지? 맞네~”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니 중학교 동창이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친구는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엄청나게 싹싹해졌네” 그렇게 말했다.

내가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싹싹하잖아” 그 말이었다.

그 싹싹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엔 싹싹하다는 그 말조차 내 두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나의 머릿속엔 두 아이 밥 세 끼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기에 싹싹하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냈다.

미래의 설계도 없었고 그날그날을 버티며 살아내는 게 최선이었다. 머릿속엔 ‘오늘 저녁엔 내일 아침엔 무엇을 해서 두 아이를 먹여야 하나’ 그 생각이 전부였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했기에 해냈다.

그렇게 나를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건강이 무너져 두 아이가 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두 아이는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나는 이제 나의 건강만을 잘 돌보면 두 아이와 며느리, 사위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내가 되었다.

Letter 06

여성시대와 한 약속

김영수 |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저는 작년 2월에 헌혈한 얘기를 여성시대에 보냈는데
 운 좋게 두 분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주삿바늘 공포증이 있는데 여성시대 50주년 기념으로
 당당이님들이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것을 보고 주삿바늘
 공포증 극복하고 헌혈한 얘기였어요. AB형 혈액은 부족할 때
 가 많은데 제가 AB형이라 보람도 크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때는 2개월마다 헌혈한다고 썼는데 그 뒤로 저는 2주
 마다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혈은 대기시간 포함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2개월마다 가능합니다. 성분 헌혈인 혈소판
 헌혈, 혈장 헌혈, 혈소판·혈장 헌혈은 대기시간이 1~2시간 걸
 리고 2주마다 헌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시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개월마다 헌혈

하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성분 헌혈은 2주마다 가능하다고 해서 도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앱인 ‘레드 커넥트 앱’으로 예약하고 헌혈의 집에 가서 상담하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성분 헌혈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백혈병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혈소판·혈장 헌혈’을 권하셨습니다. 혈소판·혈장 헌혈은 대기시간까지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해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저는 헌혈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총 10번 했는데 올해는 총 20번 헌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헌혈을 주기적으로 실천했는데 아직 헌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느낀 헌혈의 장점과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헌혈은 건강하다면 누구나 실천하기가 가장 수월한 선행입니다. 기부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헌혈부터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헌혈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한번 또 한 번 늘어나는 나의 헌혈로 성취감이 생기고 내가 건강하기에 헌혈을 실천할 수 있으니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헌혈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기에 ‘작은 건강검진’을 하는 셈이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소소한 사은품을 주기에 집에 가져가면 자녀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활동 4시간이 인정되고, 입대를 앞둔 청

춘에게는 가산점도 줍니다.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헌혈증을 모아 기부할 수도 있고 주변에 필요한 환우들에게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헌혈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맞추어 헌혈 앱인 ‘레드 커넥트’로 예약하고 ‘헌혈의 집’에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전날과 당일은 음주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삿바늘이 잠시 따끔하지만 헌혈하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주삿바늘 자국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시대 방송을 들은 뒤 주삿바늘 공포증을 극복하며 헌혈에 도전했고 여성시대에 제 사연이 소개됨으로써 선한 의무감에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고 지금은 20대 때부터 헌혈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헌혈하지 말라고 하는 그날까지 헌혈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여성시대에 감사드리며 저의 이 글로 인해서 헌혈이라는 기분 좋은 실천을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두 분도 늘 건강하셔서 당당이들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두 분의 기분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성대는 사유재를 넘어서 당당이들의 공공재이니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고 일중 형님은 희은 누님의 “노래 그만~”이라는 조언 잘 지켜서 성대 보존 잘하시기 바랍니다.

Letter 07

여기 사람 있어요

기현주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결 혼한 지 벌써 10년째. 제 나이 36살. 남자라면 지갑에 10만 원은 아니더라도 5만 원 정도의 현금과 카드는 기본으로 가지고 다닐 연차인데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거라곤 풀랑 8천 원. 그나마 그것도 나홀 동안 점심을 빵으로 때워서 남은 돈이죠.

결혼하고 강산이 한 번 지난 지금까지 저는 총각 때 입던 양복과 구두, 티셔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옷 가게에 가서 제가 입고 싶은 옷 좀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구두쇠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게는 아들딸 둘이 있는데 아내는 제 옷은 동네 시장 귀퉁이에서 떨이로 사 오고 아이들한테는 브랜드 옷을 입혀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옷을 삽니다. 한마디로 저에게는 완전 무

관심이죠.

물론 연애 시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는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어서 제 지갑은 수시로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여친이던 아내는 든든한 물주이며 수호천사가 되어주었습니다.

“머스마가 돈이 없어 기죽으마 쓰나? 사나이가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힘을 쓰제!”

지갑에 뺏뺏한 만 원짜리를 여러 장 채워 주던 센스쟁이 여친은 때마다 한약이다, 호박죽이다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축날까 봐 무지 신경 써줬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위할 줄 알고 사려 깊은 여친에게 반해 연상이라고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한 뒤 그녀의 큰 손은 불에 올린 오징어처럼 작게 쪼그라들었고 제게 쏟은 배려와 관심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첫 출근 날.

“오늘 친구 자숙들한테 쏘아야 하거든. 쪼께 더 넣어도!”

“알았다~”

저는 기분 좋게 출근했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8천 원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8만 원을 착각해서 8천 원 넣었구나 싶어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내 지갑에 얼마 넣은 줄 아나? 절대 놀라지 마라. 8천 원이 드라!”

“내 안다! 잡은 괴기에 밥 주는 거 봤나?”

처음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혼 4년 사이에 딸 아들 줄줄이
얻고 나서 저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서 버렸습니다.

하루는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술 마시다 그만 외박을 했지
뭘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는
데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당황해서 어
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내 하는 말.

“지금 일 가나? 잘 갔다 온나~”

세상에나 아내는 하늘 같은 남편이 외박을 하고 왔건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들키지 않아서 다행히 아니라 제
가 안 온 줄도 모르는 게 서운해서 투덜대며 셔츠를 갈아입
으려는데 노란색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빨아놓은 게
없는 겁니다.

“내한테는 노란 셔츠 안 어울린다. 다른 거 다린 거 없나?”

“안 어울린다꼬? 그라모 얼굴은 멋있어가 달고 다니나? 그
냥 입어라!”

속상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인지 급기야 감기 몸살이 났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와 누웠는
데 쉬지 않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킁킁 앓으며 누워있는데 아
내가 방문을 열더니 사탕 세 알을 던져 주더라고요.

“쫌! 그래도 내가 아프니까 니 뺨이 마이 아프제. 그래, 부
부밖에 없는 기다.”

저는 사탕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더니 한마
디하더군요.

“기침소리가 시끄러서 그러는데 사탕 무니 좀 낫네. 밖에

나오지 마라. 애들 감기 옮으면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그냥 단순 동거인인 거죠?

저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경 가게에 갔습니다. 아이들 눈이 안 좋아져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고르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렌즈를 끼시면 인물이 살겠네요.”

“참말로요?”

“각이 딱 나옵니다. 렌즈 한 번 보실까요?”

저는 옆에 있던 아내에게 렌즈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렌즈? 당신 안경 없이 괜찮겠나? 어디 한번 벗어봐라.”

저는 안경을 벗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영 아이가? 이상하냐?”

“음… 다시 써라.”

그렇게 아이들 안경만 맞춘 채 밖으로 나오니 아들 녀석이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해서 8개를 샀습니다. 먹으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들 녀석이 실수로 빵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얼른 줍더군요.

“아야, 누가 땅에 떨어진 거 무라 쟤노? 더럽구로~”

아내는 아들 손에 있던 붕어빵을 뺏어서 손으로 툭툭 털더니 옆에 있던 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집 기둥이며 가장이 맞는지 멍해지더라니까요.

술 마시고 온 날 정신이 없어서 한밤중에 냉장고를 열어서 아이들 음료수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들 거 먹었나? 아들은 뭘 먹노?”



“새벽에 목이 아파서 고마...”

TV 보다가 냉장고에 있는 황도 병조림을 꺼내 뚜껑을 열었을 때도 생각납니다.

“황도는 알라들 꺼라 안 된다고 했제.”

“그런다고 뜯어본 걸 이래 빼았나?”

“알라들 놀이터에서 오면 무라.”

저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황도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었죠. 잠시 후 아내가 미안했는지 케이크 비슷한 걸 한 조각 내밀더군요.

“어쩐 일로 알라들 안 주고?”

“알라들이 안 묵는단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 봉투입니까. 애들 안 먹으면 먹게요. 씹씹거리며 TV를 보는데 그 옆에 카드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썼나 봤더니 어제는 7만 원, 그저께는 10만 원. 갑자기 열이 올라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어쩐다고 전부 열라들한테만 쓸라카노? 말 좀 해봐라.”

“다 당신 애들 먹일라칸다, 와? 쫌쫌하게 간섭할라마 고마 카드 가져가라.”

네, 본전도 못 찾을 거 괜히 따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집에서 눈치를 보며 저녁밥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저녁은 뭐야?”

“찜닭이다. 닭 다리 2개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씩 나눠 먹어라.”

저는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내는? 내도 닭 다리 좋아한다. 내가 벌어진 기다” 하고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회장을 놓치지 않고 야무지게 잘 자라는 게 다 아내 덕이니 고맙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면당하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아내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내가 안 보이냐? 보이는 거 맞제? 제발 나도 챙기도!”

Letter 08

몇 달 동안의 마음고생

애청자



비 교하지 말고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큰 것에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이 닥쳐도 ‘곧 더 좋은 일이 오겠지’ 하며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늘 그렇게 지나갈 거라 믿으면서요.

2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말했습니다.

“살고 싶을 때까지 사세요. 당분간 집 팔 계획도 없고 오래 살아주면 오히려 고맙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이 가까워 중고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었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가며 맛벌이로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는 이사 걱정 없겠구나' 생각하며 조용히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은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더러 이사 갈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계약 만료 석 달 전이라 청천벽력 같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집을 알아봤고 다행히 계약 날짜에 맞춰 이사 갈 집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그날 맞춰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사 날까지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집주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안 나갔는데 왜 먼저 집을 구했냐, 당신들 잘못이다.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대출도 안 나온다.”

이사 2주 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마르던 그 몇 달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 대출받았고 친정과 시댁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란 돈은 모두 빌렸습니다. 이사 갈 집의 잔금은 치렀지만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해 결국 이사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야 집이 매매되고 잔금을 받아서 겨우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체중이 10킬로그램이나 빠졌습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돈이었으니까요. 집주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매매됐으니까 돈 보내줄게요. 늦어진 이자는 못 줘요. 청소해야 하니까 빨리 나가고 비밀번호 알려줘요.”

돈 받은 그날 바로 이사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

주인이 저더러 야박하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전세금 떼이지 않고 받은 게 어디냐고, 전세 사기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3개월 마음고생하고 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빌린 돈의 이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원금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살아온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는 왜 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못 지킨다면 최소한 미안함이라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실수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전세사기 관련 카페에 가입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간 분들의 이야기도 알게 됐습니다. 남의 돈을 자기 돈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입니다. 그 인식만 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라서 괜찮을 거라 믿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도 지금은 후회됩니다. 또 임대인과의 문자와 통화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절, 저는 주변의 일들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Letter 09

어르신들의 수호천사가 될래요

김민정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저는 올해 서른다섯 살 된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진료소장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료 취약지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고 첫 발령지로 충북 괴산 시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 아프면 멀리 읍내나 도시로 진찰받으러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과일과 채소, 옥수수 등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사시는 지역입니다. 어디가 아프셔도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동네의 보건진료소는 어르신들의 병원도 되고 약국도 되고 마음을 나누는 위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어린 나이에 시골로 발령받아 굵이굵이 산길과 들길

을 따라 차로 출근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달리 조금은 서글픈 생각도 들고 화려한 도시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며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발령지에 출근했을 때 마을에선 어린 여자인 저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이 많은 중년의 푸근한 분이 오시길 바랐는데” “나이 어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며 환영보단 의심의 눈길을 주실 땐 서글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같은 짹짹함과 다정함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니 어르신들의 마음은 서서히 풀어지셨고 나중엔 너무나 정이 들어 제가 몇 년 후 다른 곳으로 발령 났을 땐 서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무 당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침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항상 통명스럽고 말투도 날카로우셨어요. 매일같이 혈압과 혈당을 재러 오셨죠. 자동 혈압계는 못 믿겠다며 꼭 수동으로 재달라고 하셔서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혈압과 혈당을 재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늘 정상이신데 왜 매일 오실까?’

‘조금 귀찮다.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출근길이 즐겁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9시가 되어도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엄청 활기찼습니다.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머

나는 오지 않으셨어요. 건강에 유난히 신경 쓰시던 분이였기에 마음이 쓰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아드님이었습니다.

“진료소장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 중이세요. 어머니가 외롭고 우울증이 있으셔서 매일 진료소에 가시는 게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혈압과 혈당을 재러 오셨던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그리우셨던 거죠.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며 다정하게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말해주는 관심과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보건진료소는 제게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장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신임을 얻는 데 필요했던 건 의학적 지식이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향하는 애정 어린 말과 관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골 이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따뜻한 진료소장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Letter 10

제대한 아들이 보내준 가족여행

박철수 | 전남 순천시 서면



올 1월에 가족들과 함께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작은아들이 전방에서 운전병으로 군 복무 끝내고 받은 적금으로 보내준 여행이었다. 작은아들은 군대 가기 전부터 제대하면 자신이 받은 적금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각자 숙제를 내주었다. 그 숙제가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각자 계획서를 짜서 일명 프리젠테이션을 하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는 ‘해외 여행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다 댄다고?’ 그냥 부모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데 훈련소를 끝내고 아들은 자원해서 DMZ 근무, 그것도 운전병으로 지원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6개월 방위

출신인 나에게 DMZ는 엄청나게 고생하러 가는 곳이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계획은 확실했다. 철책 안에 들어가 있으니 휴가 나올 일이 적어 휴가를 모아 말년 휴가 몇 개월 쓸 수 있고, 휴가를 안 나오니 돈 쓸 일이 없어 적금을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하였다. 그런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틀어지고 말았다. 우리 아들이 철책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휴가를 모아 말년 휴가를 몇 개월씩 쓸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

적금은 군대에서 들 수 있는 최대한의 적금을 들었다. 의무적으로 든 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적금을 더 들었다는 것이다. 걱정이 되어 용돈 보내줄까 하였지만 걱정하지 말란다. 군대에서 밥 나오고 과자 나오니 용돈 쓸 일 없다는 것이다. 과자도 많이 나와 다 먹지 못하고 침대 밑에 쌓아 놓았다는 말에 6개월 방위 출신 아빠인 나는 “그럼 휴가 나올 때 가지고 나와라” 했다가 핀잔만 듣고 말았다.

정말로 아들은 자대 배치되고는 휴가 외출 자체를 안 했다. 휴가 나와서도 아들은 여행 갈 곳을 결정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 입장에서 군대에서 고생하여 모은 돈으로 여행 간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던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아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가보는 것이지요” 하면서 내 눈치를 한번 보더니 한 방 먹였다.

“아버지, 내 솔직한 걱정은 아버지와 여행이 안 맞을까, 그

게 걱정이네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아내도 거들었다.

“나도 그것이 걱정이다. 여행 가서 서로 기분만 상하는 것은 아닌지?”

몇 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내 여행 스타일은 빨리 일어나서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원하다 보니 많은 신경전이 벌어져 즐겁지 못한 여행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 날에는 내 기분을 맞추던 아내까지 신경질을 내는 바람에 즐겁지 못한 추억이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걱정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은 제대하였고 우리 가족은 올 1월에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네 아빠는 1박용이다”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체력이 하루짜리란 소리다. 첫날만 기분이 좋고 나머지 날은 체력이 달려 얼굴에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나서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대한 가족들 안 불편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체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큰 마찰 없이 여행을 잘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작은아들이 희망의 소리를 하였다.

“이번 여행을 보니 아버지랑 함께 자유여행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처음 가족여행을 가자고 할 때 아이들은 자유여행을 원했지만 내가 불안하여 패키지로 하였다. 여행 중

아이들이 야간에 지하철 타고 야시장에 간다는 말에 가이드도 없이 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여 나도 가겠다고 따라나섰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것인지. 출발부터 나는 긴장했는지 주먹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없었다. 아들은 휴대폰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버지인 나는 어린 아이처럼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현지인들 특히 남자들이 다가오면 더욱 긴장이 되어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가고 싶은 야시장을 지하철을 타고 잘만 찾아가더니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은 후에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너무 긴장했는지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뜬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 아비의 속도 모르고 아들들은 다음에는 자유여행으로 가자며 자기들끼리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획을 열심히 잡았다.

그렇게 김해에서 순천 집까지 도착한 후에 작은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내 가방! 가방이 안 보이는데~”

아내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휴게소 식당 의자에 가방을 걸어 놓고 그냥 와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아내가 식당에 연락했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들려왔다. 나는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데?” 물었다.

“현금 조금 하고 여권,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과 신용카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지만 신분증과 여권이 있었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아들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어 꼭 참고는 한마디했다.

“만약 잃어버리면 이번 기회에 여권 다시 만들면 되겠네.”

작년 몽골 여행 갈 때도 아내의 여권이 말썽이었는데 이번 대만 여행에도 아내의 여권이 말썽이었다. 여권을 만들 때 사진은 아내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아직 붓기가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아내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출국할 때 확인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 수차례 하여 겨우 통과되었는데 대만 입국 시에는 인식을 못해 별도로 불러가 확인 절차를 받은 후에 통과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 휴게소에 들러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니 가방을 훔친 남녀가 가지고 가는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우리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만 없기를 바라고 여권 및 주민증, 신용카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며칠 만에 연락이 왔다. 가방을 찾았다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잃어버린 것 없이 현금 액수까지 딱 맞았다. 여성시대를 통해 가방을 경찰서에 맡겨준 그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Letter 11

슈퍼에 온 손님

최영자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운동복 차림으로 우유를 하나 가져오더니 “여기서 앉아 마시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다. 아침이라 손님도 없고 해서 편하게 앉아서 마시고 가시라고 의자를 내드렸다. 그랬더니 고맙다며 그 의자에 앉아 우유 한 모금을 마시더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가족 얘기, 직장 얘기, 스트레스받아서 힘들었던 얘기 등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늘어놓으셨다.

난 웃으면서 들어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니, 이런 얘기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들이나 직장 동

료를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해야 하는 얘기 아닌가? 이른 아침에 낫선 슈퍼에 들어와 왜 어머니뻘 되는 나에게 하고 있는 걸까? 그것도 10분도 아니고 2시간이 넘도록?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영업을 방해했네요. 어머니같이 편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주책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 여과 없이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더니 나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곧 잊어버렸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그 아저씨는 지난번과 같은 모습으로 우유 하나를 들고 와서 이번에도 앉아서 마시고 싶다고 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지난번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저씨의 인생사 2탄’을 무슨 시리즈처럼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버지와 양처럼 순종적인 어머니 그리고 누님 다섯 분과 함께 살아왔는데 아저씨를 낳기 전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했다. 끝으로 아들을 낳아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학대받으면서 살아오신 탓에 엄마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울증 환자가 되셨단다. 아저씨는 엄마의 병도 고쳐드리고 효도도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하늘나라의 별이 되셨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20년이 넘도록 아내나 딸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앉아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던데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엄마를 지켜줄 만큼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엄마가 안 계시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나도 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보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름 모를 그 아저씨의 인생사를 듣고 보니 내 삶이 그렇게까지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요즘도 가끔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가시는데 예전엔 과거사를 들려줬다면 지금은 현재 얘기를 주로 들려주신다. 1년이 넘도록 그분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한 편의 슬픈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오늘은 ‘우리 가게 드나드는 모든 손님들 가슴에 저런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한 편씩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Letter 12

탈출에 실패한 거북이

허현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저는 여성시대를 좋아하는 남성 당당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거북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오게 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고자 거북이 두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커먼머스크’라는 거북이로 비교적 키우기 쉽다고 해서 두 마리를 입양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까만 거북이에게는 ‘까미’를 하얀 거북이에게는 ‘야미’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한시도 눈을 못 땀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주던 거북이 중 ‘야미’가 2년 전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날 ‘야미’를 땅에 묻어주며 통곡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

네요. 홀로 남은 ‘까미’가 외로울까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상 외롭지 않을 거란 전문가의 말에 다른 거북이를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까미’의 탈출극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각형의 작은 어항에 갇혀있는 게 답답한 건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지 하루 종일 단단한 유리 벽을 발로 박박 긁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1주일, 2주일…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유리 벽을 손으로 툭 치면 깜짝 놀라 후다닥 어두운 곳을 향해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아침을 주기 위해 어항으로 갔는데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어항의 높은 벽을 넘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유를 찾아 ‘까미’가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거북이 특성상 소파 밑부터 냉장고 밑까지 구석이란 구석은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은 해야 했기에 찾는 걸 포기하고 회사로 왔지만 하루 종일 거북이 생각만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어있을까?’

‘뭇 찾으면 죽을 텐데. 그럼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뭇 찾았다고 하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오만가지 생각이 들던 중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왜요?”

“거북이 찾았다.”

“진짜? 어디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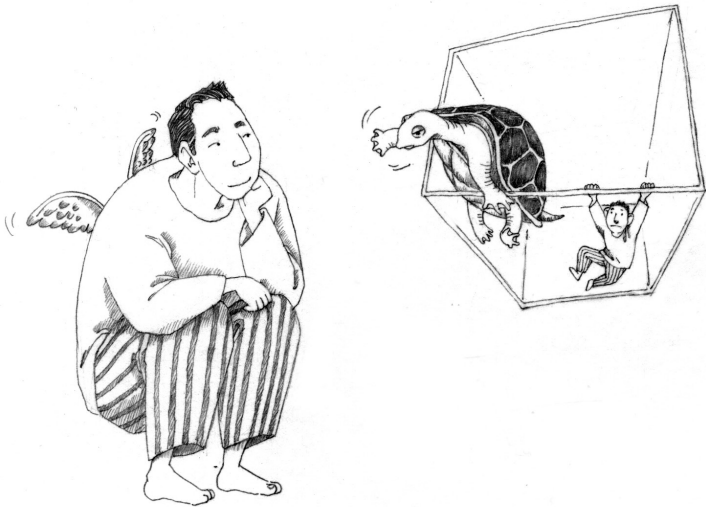
“TV 장식장 밑에 까만 큰 성경책 뒤에 쭈그리고 있었어. 청소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다행이네요. 집에 가서 봐요.”

까미의 자유를 찾아 떠난 탈출극은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두세 번의 탈출이 있었지만 한 번 찾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무참하게 꺾어버린 탓일까요? 최근 들어 ‘까미’가 구석에 처박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물갈이를 해줘도 좋아하질 않습니다. 야생이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거북이의 수명은 길어야 7~8년이라는데 까미마저 하늘로 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러다 문득 지금 제 처지와 비슷하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안정된 회사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나가면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야심 차게 도전했던 무인 사진관은 적자를 거듭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애정을 쏟았던 블로그도 점점 방향성을 잃어가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까미’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얼마 전부터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답답한 유리에 가로막혀 멍하니 밖을 바라만 보고 있는 까미를 넓은 연못에 풀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야생에서 잡아먹힐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차라리 어항을 더 큰 것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더 큰 어항으로 바꿔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까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지만 아직 때가 아님을 알기에 저에게 돌아올 때를 맞이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13

아들의 변심

애청자



며 칠 전 아들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할지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뒸다. 출근해서도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올해로 마흔한 살이 된 아들은 비혼주의자다. 몇 해 전 할말이 있다며 가족회의를 소집하더니 본인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언제쯤 며느릿감을 데려오려나 이제나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우리 부부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아내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나는 '우리 집 대가 끊어졌다'며 아들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다.

비혼 선언을 한 뒤 벌써 5년이 넘게 흘렀고 그동안 온갖 설득과 회유, 협박까지 해보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순 없

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이번 생에 며느리와 친손주는 볼일이 없겠구나 하며 포기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또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아들은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물었고, 우리는 “저녁에? 왜? 우리야 뭐 별일 없지. 왜 무슨 일인데?” 묻자, 아들은 “퇴근하고 가서 얘기할게요” 했다. 도대체 이 녀석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가슴이 조마조마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서둘러 퇴근했다.

드디어 아들과 마주 앉았다. 아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에게 말했다.

“주말에 여자친구 인사시키러 올게요. 결혼할 거예요. 엄마,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누구를 인사시킨다고? 여자친구? 결혼? 네가 결혼을 한다고?”

그랬다. 아들은 비혼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만세삼창을 불렀다.

“만세! 만세! 만세!”

이제 죽어서 조상님을 뵈 면목이 서겠구나 싶었다. 아내는 옆에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부부는 계속 ‘아이고 잘했다~’ 이 말만 내뱉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어 우리는 곧 며느리가 될 아가씨

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왜 결혼하고 싶은지 단번에 이해가 될만한 예쁜 아이였다. 어른들 대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환한 미소가 어찌나 예쁜지 아내는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 고맙다~” 연신 고맙다는 말만 했다. 나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첫 대면을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또 할 말이 있다며 본가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또다시 심장이 철렁했다.

아내는 “혹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얘가 뭐 할 말 있다고 하면 이제 심장이 떨어져 죽겠어” 한다.

난 아내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나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 부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결혼할 거지? 응? 결혼하는 거지?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야 이놈아~ 청첩장 다 찍었는데. 아니지? 할머니 고모들 삼촌들에게 다 말해놨는데 결혼할 거지?”

아내는 내가 입도 떼기 전에 속사포같이 랩을 쏟아냈다. 아들은 “아니예요. 그런 거”하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아내는 “이게 뭔데?” 하면서 봉투를 열어 보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아~ 왜 뭔데!” 하며 아내가 들고 있던 작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지? 순간 어리둥절했지



만 이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며 아들을 껴안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 아주 작지만 선명히 보이는 꼬물거리는 새 생명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어요” 했다.

우리 부부는 요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 중이다. 적막했던 집안에 활기가 돌아났다. 아내는 낯노래를 부르며 설거지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쏟곤 한다.

“좋은 일 앞두고 왜 눈물 바람이야?” 하면 아내는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보, 나 좀 꼬집어봐! 이거 꿈 아니지?” 하며 흘쩍댄다. 더없이 행복한 요즈음이다.

Letter 14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정현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전 날 몸살기가 있던 탓인지 밤새 얇은 잠을 잤습니다. 꿈자리도 어찌나 사납던지 온갖 꿈을 다 꿴네요. 그러다가 급기야 영영 큰소리를 내며 울기까지 했지 뭐니까. 옆에서 자던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이나며 깨웠을 때는 제 얼굴은 이미 눈물로 엉망이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왜 그렇게 울어?”

자기 전에 몸이 아프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는지 남편이 걱정스럽다는 듯 제게 말을 거네요.

“아니야. 꿈꿔서 그래.”

“무슨 꿈이기에 통곡을 해?”

“우리 아들이 아기 때 모습으로 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조그만 손을 꿈지락거리는데 꿈인 줄 알면서도 잡아보

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살며시 잡아봤더니 얼마나 따뜻한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 버렸어.”

“나 참, 별 희한한 이유로 울고 난리네. 애는 자기 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왜?”

아들은 며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달이면 대학생이 됩니다. 엄마 껌딱지던 시절이 옛그제 같은데 벌써 성인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무의식중에 꿈으로 나타났나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책이다 싶습니다. 내년엔 군대 가면 매일 밤 통곡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가 공부에 특출난 재능이 없었으니 내 자식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며 키우긴 했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배제할 수 없고 부모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제 아들은 엄마 판박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더라고요. 딱 학창 시절 제 모습이니 누구를 닮았습니까. 입시와 무관한 과목만 좋아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수학과 영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못하는 아들이 내 신에 반영도 안 되는 일본어는 전교 2등씩이나 하더라고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일본어를 전공하기를 권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고 재능도 있어 보이니까요.

“아니요. 일본어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정도로는 어렵도 없어요. 저는 출판사에 취직해서 번역일도 하고 등단도 할 거예요.”

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어가 아니라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순수문학 작품을 써서 등단하겠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창작학과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판생각만 하고 있으니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렇게 꿈이 확실하니 기특하다’ 싶다가도 ‘글 써서 먹고 살기는 힘들 텐데 글은 취미로 쓰고 취업에 유리한 과로 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몸은 아빠보다 더 컸지만 제 눈에는 아직 부모가 많은 부분을 결정해 줘야 하는 어린아이로 보였나 봅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멀쩡하게 집을 나섰던 남편은 급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고 아들 앞에서 의연하고 싶었지만 무너지는 저에게 오히려 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고3인 아들이 충격받을 수 있으니 ‘암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남편은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9살이나 된 아들에게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리 있나요. 아들은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평일에는 빈집에서 혼자 학교에 다녔고 주말에는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 시간마다 아빠를 만나러 왔습니다. 의젓하던 아들은 ‘힘드니까 안 와도 된다’는 아빠 말에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아빠의 배려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섭섭했다네요. 이럴 때 보면 또 아직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남편은 수술과 네 번의 항암

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재미있게 지내겠다며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빠한테 열심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두 남자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저는 좀 심술도 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참아줘야겠지요.

남편이 생각보다 길게 쉬게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러저럭 살림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기특하게 장학금도 받게 되어 엄마의 가벼운 지갑에 부담을 덜어주었네요. 등록금 걱정을 덜었으니 아들에게 노트북과 새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남편은 요즘 열심히 검색하고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들이 작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의 벽에 세계 부딪히고 좌절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저는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행복하기를요.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이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니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너의 삶에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엄마 아빠에게 해야 할 몫은 다했으니 이제 너의 꿈을 위해 나아가자. 어른이 된 걸 축하한다, 아들이!

가랑스려웠던 시간들에

전속자 | 대구시 수성구 국제보양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남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속자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로 20년이란 세월동안
조무사의 권을 쉰 없이 달려왔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네요

(어느 때이던 소중한지 짧은 삶은 없었지만요~)

20년을 근무해왔던 시간들의 감사한 맘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어 이렇게 편을 들어 보았
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남산인 상"을 받을수있었던 가슴뭉클했던 그 순간
 들까지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
 되면서 집으로가는 재활치료에 각 부서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시간들을 보오면서 저도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얽혀왔던
 시간들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울컥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제가 배운것이 더 많았던 저에게는
 인생공부가 되어준 곳이었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들도 아픔의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연생들이였기에 더 가슴아파왔던
 저의 심정~ 어느 인생이던 세월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아픔의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20년이란 시간동안

근무해오면서 환가들에게 말 한마디에서도 편안함을
 주고싶었던 그 시간들은 제가 더 위안이 되었고 때로는
 벽을보고 돌아 누운채로 눈물을 흘리고있는 환가들을보면서
 제가 더 눈물이 났던 지나간 그 세월들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네요

노년여 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준 원할수있었던
 조무사의 길은 소중한 선물이 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로 저의 노후준비까지 채워주고 있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자주만
 고맙다는 연사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건강한 맘가짐으로 근무에 협할수있도록 삶을 살아
 가게 만들어준 남안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근무시간도 원칙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맡은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시간들이 될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근무에 얽매있던 시간들이 정년퇴직

후에도 20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출·퇴근권이 되도록
 도움을주신 남산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힘들었을때
 다독여 주셨던 간호부장님과 차석림장님 덕분에
 개월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에도 함께 할수있었던
 그 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제 인생 역사에 한
 페이지인 추억을 만들어가는 열거장에 저장이 되었
 답니다 20년동안 종종 편음으로 출·퇴근권이 되어준
 그 시간들에 행복했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늘 제 마음속
 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네요
 20년이란 세월동안 남산과 함께 해오면서 감사했던
 시간들을 노후에는 그리움으로 채워지는 추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남산과 함께 해온 자랑스럽었던 시간들에
 고맙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편지로 보내 봅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2996] 라디오 들으며 밭 갈고 있어요. 20년 동안 변함없이 여성시대 듣고 있습니다.



[3004]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MBC만 듣고 있는 나~ 칭찬해요.



[3840] 일중 씨의 여성시대 책자 나왔다는 얘기 듣고 걸어서 은행에 도착했더니 책이 예쁘게 진열돼 있네요.



[0975] 여성시대 가족 안녕하신가요~ 저는 딸기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783] 새싹삼 하우스에서 일하며 듣고 있어요. 늘 여성시대 들으며 자라고 있는 새싹삼이라 그런지 당당합니다.



[3480] 출근길에 받아왔어요. 설레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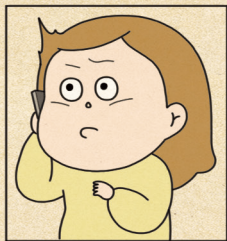
경남 김해서 두곡로의
현혜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 엄마가 또 운전을 하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시다.
최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어나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라 일러드렸건만
이번에 또 사고 소식을 전해오신 거지요.



혜진아 어떡하니
엄마 속상해 죽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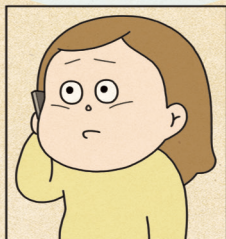


그렇게 엄마는 비상금을 달달 털어 현금 100만 원으로
보험료를 겨우 처리할 수 있었다며 이야기하시는데
어찌나 걱정이 되고 속상하던지요.



그나저나
오늘 택배 하나 도착 할 거야.
우리 아기 수저 샀느라
내가 입내를 이 잡듯이 뒤졌다.

뭐!? 연우 수저 하나 사겠다고
운전을 해서 입내를 나갔다고?
그깟 수저가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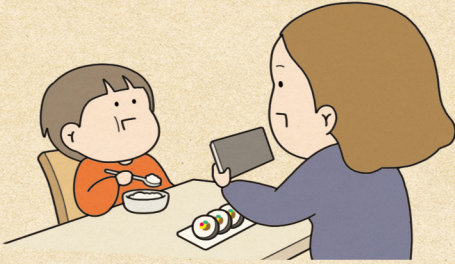


얘는 그깟 수저라니
우리 연우가 혼자
밥 먹게 해주는 수저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게 크고 있는 우리 아들 연우
아직 소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여섯 살이 되도록 혼자 수저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분식집에서 잡게 된 수저고는
안정적으로 밥을 잘 먹기에
그 장면을 찍어 엄마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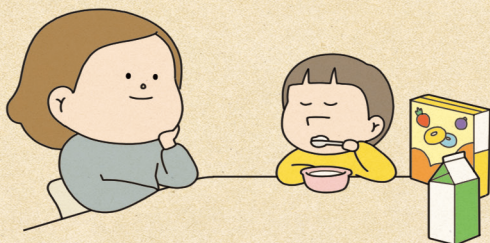
그 사진 한 장이 발단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수저,
아니 스테인리스 수저네
우리 엄마 손주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엄마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영동 시내를 두지고 두져
사진 속 수저와 똑같은 걸 찾아내어 제게 보내주신 거지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은 지금
할머니가 보내준 100만 원짜리 수저로
혼자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수저를 볼 때마다
느리게 가는 손주와 육아에 지친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아뜻해지는 것입니다.



이젠 인사도 조금씩 하고
제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기도 하는 우리 아들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어요.



늦게 핀 만큼
더 크고 멋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게 분명한
우리 연우에게 큰 응원과 힘을 보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우리 동네 평생 주치의



IBK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 거래고객

365플러스내과의원 유정선 대표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접근성 좋은 지역 병원에 나만의 주치의가 있다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365플러스내과의원은 환자의 생활 습관과
 질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 주치의를 자처하고 있다.

365플러스내과의원은 '진료 잘 하는 대형 내과검진센터'라는 목표를 갖고 2019년 하남 미사강변 도시에 개원하였다. 개원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폭넓은 진료를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맞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2년 병원을 추가 확장하였고 현재 풍부

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과별 전문의 12인과 직원 70여 명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저선량 흉부 CT 및 내시경, 초음파 장비 등 대형 병원급 진단 장비와 약 2000평 규모의 쾌적한 진료 환경 및 효율적인 동선 설계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65플러스내과의원은 소화기 내과, 가정의학과, 부인과, 영상의학과 등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진료가 가능하며 초음파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감기·장염 등 급성 질환 진료, 건강검진, 위·대장내시경 포함 소화기 내과적 검사, 부인과 검진 등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개원 후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병원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9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감염 환자가 한 명이라도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 전체가 일주일간 문을 닫아야 했다. 병원 규모가 크다 보니 타격도 더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염 관리를 더욱 빈틈없이 하고 진료 환자라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유정선 대표원장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환자에게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직원 복



지에 힘쓰고 있다.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직원들의 일상과 일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고, 부서별 인원 충원을 통해 연차나 휴가에도 나머지 팀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그에 따른 포상 휴가 및 상여금을 제공하고 직원들 가족의 건강검진도 책임지고 있다.

“환자분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완치할 수 있도록 한 경험들

이 저에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병원 수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환자분들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평생 주치의로서 진료 잘하는 대형 규모의 내과 검진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IBK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 하용택 지점장은 “365플러스내과의원은 지난해 병원의 안정적인 금융 파트너의 필요성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었다”며 “IBK기업은행은 병원의 성장 단계에



맞춰 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병원이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및 새

로운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재무적 기반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며 “365플러스 내과의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IBK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 하용택 지점장(왼쪽)과 365플러스내과의원 유정선 대표원장

❶ 365플러스내과의원 유정선 대표원장의 운영 노하우

1. 대형 병원 규모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춰라.
2. 지역 환자들의 평생 주치의가 되어라.
3. 직원 복지에 힘써라.

365플러스내과의원

대표원장 유정선

전화 031-796-8288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39 에코타워 2-5층

홈페이지 <https://365plusclinic.co.kr/>



코너 속 편지

여자는 모른다

- 77 내 온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 81 챔피언의 꿈
- 86 쉘 위 댄스
- 91 당신은 다이아몬드
- 96 오 마이 베이비
- 101 그리움을 닦다

사랑 사랑 사랑

- 105 100만 원짜리 밀크티



여자는 모른다

내 온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애청자

아침마다 제가 이 시간에 여성시대를 듣는 이유를 저는 오래도록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나 큰 위로를 바라서라기보다 말이 앞서지 않는 목소리, 사연을 결론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느리게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곳이라 믿음이 드는 곳이었습니니다. 특히 양희은 씨가 때론 침묵으로, 때론 “그러시구나~” 하면서 친구처럼 곁에 앉아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여성시대를 오래 들으면서 배웠습니니다.

요즘엔 옆자리 공기가 조금 달라지신 거 같더군요. 성실하고 밝은 목소리의 일중 씨는 사연이 끝나자마자 매끈하게 설명하는 방송인 같아서 제가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순간도 생겼습니니다. 그래도 제가 여전히 채널을 돌리지 않고 남

아있는 건 이곳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사람의 진심이 얹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습관처럼 라디오를 켜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 아직 여기가 남아있구나! 사람 사는 이야기가 버티고 있구나!’ 괜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 시간에 꼭 사연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저 100도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끝내 타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기록이죠. 조금 느렸고 많이 흔들렸고 지금도 여전히 제 온도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 99도에서 멈추면 그건 실패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이 손에 잡힐 텐데 왜 포기하느냐고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게 만듭니다. ‘오늘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하지만 인생을 길게 펼쳐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뜨거운 온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걸요. 어쩌면 이무기가 끝내 용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실은 실패의 전설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먼저 알아본 ‘생존’의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패배는 99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100도를 만들겠다고 고집 피우다 결국 나 자신을 태워 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상상은 저를 웃게도 했지만 때론 위험하게도 만들었죠.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시면 제 눈엔 그 회초리가 뱀

이 되어 아버지 목을 휘감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대가로 더 호되게 맞곤 했습니다. 상상은 저를 구해주진 못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를 다른 장면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형 트럭과 중장비를 고치는 정비사셨어요. 거대한 엔진 앞에서는 손 하나, 눈 하나 틀림없이 정확한 분이었지만 정작 가족 앞에서는 늘 말이 부족하셨죠. 기계와는 완벽하게 소통하면서도 사람의 마음 앞에서는 자주 고장이 나던 분. 술에 취해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고 잠든 저를 끌어안고 말없이 우시다가도 어느 밤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살림을 부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게 늘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내 안의 이 많은 환상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저주라고요. 아버지는 현실을 견디지 못해 술로 도망쳤고 나는 상상으로 도망쳤으니 우린 방식만 다를 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결국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으니까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 공포는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의실에서 멍하니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다그쳤죠. ‘정신 차려, 도망치지 마!’

모두가 100도를 향해 끓어오르는데 저만 어딘가 다른 온도에서 있는 것 같아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윌터

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만났습니다. 그 영화가 그러더군요. 상상은 도피일 수도 있지만 연습일 수도 있다고. 상상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던 주인공이 현실에서 진짜 한 발을 내딛는 걸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 상상은 저주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방식이었구나.’

그제야 아버지를 조금 다르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현실이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해는 했지만 저는 그 선택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술 대신 말로, 폭발 대신 멈춤으로, 도피 대신 아주 작은 한 걸음으로 가보려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도 그런 밤이 올 겁니다. 끓어오르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는 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새벽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9도에서 멈춘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자신을 태워 없애지 않기로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남들보다 덜 특별해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그건 이미 아주 단단한 일을 해낸 거라고요.

환상을 품되 현실과 가까이 악수하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신을 혹사시키지도 마시고요. 100도가 아니어도 오래 데워진 사람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는 여전히 99도에서 멈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온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걸요. 이런 제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챔피언의 꿈

애청자

2016년 겨울, 그해는 제게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청년 실업이 흔해진 시기에 겁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던 저는 학사경고를 두 차례나 맞고도 운 좋게 '임용'에 합격했거든요. 사회 초년생의 따뜻한 첫 월급,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취감까지 참 행복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도관 등록'

사실 유도와의 인연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우 무더웠던 여름, 수학 과외를 받다 지친 선생님과 제가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유도의 신 '이원희' 선수의 데뷔전을 본 겁니다. 그의 시합은 유도에 대해 전혀 모르던 문외한인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판

을 호쾌한 메치기로 넘기는 그의 기술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유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언젠가 꼭 유도를 배우리라!’ 결심을 품은 것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2016년 겨울, 저는 저와의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유도관을 방문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유도관 사모님,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익숙하게 준비운동을 하는 관원들 사이에서 ‘필라테스장에 처음 간 신입 회원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생각하며 연습을 시작했고 유도와의 인연이 필연이었는지 저는 점점 유도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키가 작아 늘 앞번호였던 저에게 내 힘을 이용해 저보다 큰 사람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 간 구겨졌던 남성성과 자존감이 매트 위에서 유도를 하며 다 회복되는 기분이었죠.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어도 슬퍼도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저는 유도관에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된 지금 이제는 웬만한 도장에선 이길 사람이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국내든 해외든 그 지역 유도관을 방문해 대련을 해보는 일명 간판 깨기 실력도 생활체육인으로는 꽤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도장에서는 유도의 전설 ‘왕발’ 하형주 선수와 맞붙었던 ‘비아르디니 프리kson’이라는 분과도 시합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난 10년 유도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오더군요. 손가락 통증이 어깨로 번졌고 처음엔 스테로이드 주사로 좋아지는 듯했던 통증이 체외충격과 치료를 20번 넘게 받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사를 유달리 무서워서 초등학교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연어 DNA 주사’도 권하셨는데 가격이 일반 주사의 3배쯤 비쌌지만 유도를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맞았습니다.

“으아아악! 선생님! 연어고 뭐고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아직 주사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제발 안 아프게 좀 놔주세요! 제발~ 저 유도해야 하거든요. 제발~ 아~ 아아아아악! 너무 아파~”

그렇게 비용과 통증을 감당하며 주사를 맞았지만 어깨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정확한 처방을 위해 찍은 MRI 결과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관절와순을 비롯해 어깨가 이미 ‘70대 노인’ 수준이라는 판정. 야구 선수들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유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지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제 유도 진짜 그만해야 할 거 같아.”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가 잘 안돼. 미안해.”

“그게 왜 미안해. 나도 다 알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유도

를 사랑했는지. 근데 여보 있잖아. 이제 당신 그 어깨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 여기. 우리 아기 사진. 당신 어깨 다시 튼튼해지면 이제 유도 선수들 넘기는 거 말고 우리 아기 번쩍번쩍 안아줘야 해. 아빠가 어깨 아프면 우리 아기 너무 슬프잖아.”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좋아하는 걸 기꺼이 포기하는 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는 일! 그게 부모의 길이라 생각하니 때마침 수명을 다한 제 어깨가 저는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른세 살에 어깨가 다 닳았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한 종목에 엘리트 못지않은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증거니까요.

지난 2월 13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 눈물로 은퇴식을 치르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는 새로운 데뷔를 선언합니다. 나의 젊음과 영혼을 갈아 넣어 얻은 이 ‘끈기’를 제 아이에게 물려주는 부모로서의 데뷔 말이죠.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요. 2004년 올림픽에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이원희 선수만큼 유도로 세상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만의 세상을 제 아이를 위해 흔들어보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이가 나의 끈기를 이어받아 대신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아들아, 아버지는 이원희 선수의 끈기는 가졌지만 타고난 육체적 자질이 챔피언에 미치지 못해 세상에 감동을 주진 못했다. 하지만 너는 강인한 육체로 태어나 아버지 대신 세상을 울리는 멋진 유도 선수가 되면 좋겠구나.”

마지막으로 제 은퇴를 묵묵히 준비해 준 사랑하는 아내 이인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보, 이제 나의 모든 끈기는 다 당신 거예요. 당신에게 다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자는 모른다

셸 위 댄스

애청자

춤이라고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봤던 ‘꼭두각시’ 춤이 전부였던 제가 일본 영화 <셸 위 댄스 Shall we dance?>를 처음 접하고 나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던 중년의 샐러리맨이 춤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된다는 스토리였는데 당시 직장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고 권태에 빠져 있던 제게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죠.

특히나 아내에게 고용된 사립탐정 대신 주인공을 염탐하며 따라다니다 점점 춤에 빠져 마침내 제2의 인생을 찾게 되는 ‘아오키.’ 주인공의 직장동료이자 가발을 쓰고 춤을 추던 그의 모습에서 아주 기분 좋은 대리만족까지 흠뻑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는 이런 물음이 있었죠.

‘지독한 음치, 박치, 몸치인 나도 인생에 한 번쯤은 저런 스텝을 밟으며 춤출 날이 있을까?’

솔직히 댄스 동호회를 기웃거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 춤 좀 배우려고요”라고 말하는 순간!

“뭘? 춤? 배 대리, 요즘 시간 많나 봐? 이번 프로젝트 자신 있나 보지?”

“어머, 자기 들었어? 옆집 배 씨 아저씨 춤 배운대. 웬일이니. 춤바람났나 봐. 점잖게 생겨가지고. 그 집 여자 불쌍해서 어째?”

저는 그냥 순수한 스포츠이자 예술로서 춤을 동경했지만 “시끄러워! 그럴 시간에 보고서나 다시 써와!”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괜히 사서 욱먹느니 참자. 꿈틀대는 욱망을 꺾고 눌러 담았죠. 왠지 민망하고 제가 너무 못하니까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그렇게 꿈만 꾸다가 수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문제로 잠시 미국에 머물게 됐는데 세상에 집 근처 문화센터에 ‘볼룸댄스 8주! 체인지 유어 라이프! Make your dream come true!’ 이런 광고가 붙어있더라고요. 미국은 아무도 절 모르잖아요.

“오케이~ 나이스~”

그때부터 제 안에 꺾고 눌러뒀던 댄스의 욱망이 꿈틀꿈틀 다시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하겠

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구워삶기 시작했죠.

“여보, 여보! 우리 이거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응?”

“아우, 또 시작이네. 당신 제정신이야? 나 춤 못 추는 거 몰라? 나 고등학교 때 무용 실기 평가도 전교 꼴등 했던 여자야!”

“그러니까 같이 하자. 내가 더 몸치 박치니까 내 옆에서 하면 당신 진짜 돋보일 거야.”

“아, 싫어. 영어도 안 들리는데 가서 주눅거리는 거 창피해. 당신 혼자 가.”

“아잉~ 강동원 닮은 남편 혼자 보냈다가 금발의 미녀랑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딱 8주. 두 달만 눈 딱 감고 같이 가주라. 응? 내 소원이야!”

“아우 진짜 저놈의 얼굴. 알았어. 대신 진짜 딱 8주 만이다. 더는 없어. 알았지?”

그렇게 아내를 설득해 마침내 3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댄스 교실에 입성했습니다.

“Oh~ Hi, Welcome!”

“New face? Don't be shy! Just feel the music~”

수업은 지역 주민들 대상이라 학생부터 직장인,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폭신평신했던 스텝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저 할아버지랑 할머니 보이지?”

“응, 어머니~ 세상에. 백발이 성성한데 어쩔 저렇게 우아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내 말이! 내가 꿈꾸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야. 여보, 우리도 딱 저렇게 늙자.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어때? 쉘 위 댄스?”

“오케이~ 렛츠 댄스~”

수업을 듣는 내내 저는 먼 훗날 아내와 함께 스텝을 밟는 노년을 상상하며 수업에 아주 푹 빠져들었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다던 아내는 춤보다 지역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사귄 수 있어 좋아했지요.

드디어 8주가 지나고 대망의 종파티 날.

“Oh My God! 미스터 배! 유 아 더 베스트 댄서!”

“하하하~ 땡큐 땡큐. 아임 댄싱 머신 프롬 코리아.”

“Oh! Mr. 배! One last dance! Please! You are the Best Partner in our class! Number One!”

제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연습했더니 들으셨습니까? ‘유 아 더 베스트 댄서! 넘버원’ 제가 수강생 중에 최고의 댄서! 가장 정확한 스텝으로 파트너를 리드해 주는 인기남이 됐더랬죠.

수강생 여자분들이 “다음 클래스에도 꼭 와야 한다~” “나랑 한 번 더 스텝을 밟자~”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스텝을 밟았습니다. 파트너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음료 세례와 선물도 받았지요.

아~ 다시 생각해도 참 꿈같은 날들이었네요.

한국에 돌아와 어언 20년, 저는 이제 걸을 때 빼고는 단 한 걸음도 스텝을 밟지 않는 중년을 훌쩍 넘긴 배 나온 젊은 할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한테 미국에서 날렸던 시절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야, 노래방에서 탭버린 박자도 틀리는 놈이 니가 무슨 놈의 왈츠야? 뺨치지마.”

“진짜라니까! 나 미국에 있을 때 별명이 ‘댄싱머신 프롬 코리아’였어. 내가 스텝 한번 밟으면 미국 아줌마들이 아주 꺾뺨 죽었다고!”

“에이구~ 꿈꿨냐? 술이나 마셔.”

“아 진짜 억울하네. 나 그때 진짜 날아다녔다고!”

“그래그래~ 이따 집에도 그렇게 날아가라.”

“그래 임마, 스텝 밟다 넘어지면 이제 우리 나이엔 일어나기 힘들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스텝 대신 잔으로 짬~”

“짬짬짬! 쉘 위 댄스 마시자!”

아~ 그때 동영상이라도 한 편 찍어놔야 하는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추기도 힘든 나의 댄싱 전성기는 오늘도 그렇게 잊혀만 가네요.

여자들은 모릅니다. 멋지게 춤추며 나이 들어가고 싶은 로망이 꿈틀꿈틀 남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많다는 것어요.

여자는 모른다

당신은 다이아몬드

애청자

“자자, 회원님! 마지막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으라차차취!”

“으으으~ 쌤, 아까부터 계속 마지막이라면서요. 저 진짜 토 할 거 같아요.”

“엄살 피우지 마십쇼.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그게 다 희열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하나 더!”

“으아악~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네에서 꽤 잘나가는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십수 년 간 무거운 쇠질을 하며 단련해 온 근육질의 몸, 그게 그의 자부심이자 전 재산이었죠.

새벽 7시 텅 빈 센터의 불을 켤 때 흐르던 그 정직한 공기를 사랑하던 남자. 그에게 운동은 직업 그 이상의 ‘종교’였습니다. 굶어 있던 회원들의 어깨가 퍼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받은 듯 아이처럼 활짝 웃곤 했지요.

하지만 잔인한 농담처럼 타인의 무너진 몸을 세워주는 동안 남편은 정작 자기 안에서 무너져가는 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환자분, 여기 모니터 보세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폐동맥을 꽉 막고 있습니다. ‘폐혈전색전증’이에요. 요즘 숨찰 때 그냥 넘기셨죠? 이거 자칫하면 혈관 터지거나 심장마비 옵니다. 당장 입원하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2023년 여름 그에게 ‘첫 번째’ 폐혈전 진단이 내려졌을 때도 그는 오만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까짓 거 운동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는 보란 듯이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고 예전의 치열한 삶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2025년 7월 다시 마주한 병실의 천장은 차가웠습니다. 재발한 폐혈전 그리고 이어진 청천벽력 같은 소리.

“희귀암 의심 소견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끝을 부여잡고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병변은 비웃듯 커져만 갔고 12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결국 그의 이름 옆에 붙은 무거운 마침표를 마주했습니다.

‘폐혈관육종암’

“항암이 시작되면 일을 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변 정
리부터 하세요.”

의사의 말은 그가 쌓아온 삶의 궤적을 강제로 멈추라는 명
령 같았습니다. 부검을 해도 원인을 알기 힘들 만큼 희귀한
병이라는 모진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날, 저는 그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둠이 내리면 남편은 거대한 해일 같은 질문들
에 휩쓸리곤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걸
까?”

남편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휴대폰 속엔 절망적인 통계와
숫자들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흐
려진 눈동자를 발견한 그가 결연히 검색창을 단단군요. 그는
공포에 질려 죽어가는 대신 병을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인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주치의 선생님도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셨습니다.

“환자분이 젊고 건강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항암제를 100% 정량 그대로 투약해 봅시다. 버틸 수 있을 겁
니다.”

의사의 말은 그에게 독이 아닌 살고 싶다는 투지를 불태우
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2026년 1월 첫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4박 5
일 동안 24시간 내내 링거줄을 타고 흐르는 붉고 투명한 약
물들. 그는 생소한 공포를 묵묵히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항암



이 끝난 뒤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팽이처럼 돌고 속은 뒤틀린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몸에서 나는 약 냄새. 땀구멍마다 숨결마다 배어 나오는 비릿한 화학 물질의 향기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고 그 냄새는 그가 ‘환자’임을 상기시키는 지독한 낙인이었습니다.

“내 몸이 꼭 실험실이 된 것 같아. 예전의 그 개운한 땀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을까?”

혼잣말하는 그의 곁에서 저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어요.”

의료진의 격려 한마디에 매달려 우리는 하루를 또 한 시간

을 버텨냈습니다.

퇴원 후 여전히 울렁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는 다시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아프지 않았던 시간의 유일한 증거물인 그곳. 하지만 50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는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을 돌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인 사업자인 그에게 멈춤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며 공간을 잃는 것이 사회적 자아의 죽음 같다고 두려워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이 문을 닫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후퇴라는 것ですよ.

“회원님들 ‘건강은 습관입니다’ 제가 늘 외쳤던 그 말.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알 길 없는 병이라며 고개를 저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의 젊음과 건장한 체력이 이 지독한 항암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ですよ.

남편은 이제 겨우 1차 항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라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릿한 약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그는 다짐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쁜 숨을 정성껏 내쉬며 항암을 견뎌내는 그는 강인한 의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나’로서 살아내는 멋진 남자입니다.

여자는 모른다

오 마이 베이비

애청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남자는 저의 예전 직장 선배, 일명 미스터리 맨입니다. 저와 딱 띠동갑이었던 그 선배는 당시 나이 마흔의 노총각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어느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었냐면요.

“아, 선배! 빨리 좀 와요! 거기 ‘맛집’이라서 줄 서야 된단 말이에요.”

“배 대리, 그냥 와. 저 선배 기다리다간 점심시간 다 끝나.”

“허억~ 그래 다들 먼저 가. 내가 다리가 좀 짧아서... 허억~”

딱 보기에든 어수룩한 외모에 말은 항상 더듬고 걸음걸이는 느리고 어딜 가나 뒤처지고 손이 많이 가는 선배였어요.

“어? 사장님! 여기 메뉴 잘못 나왔는데요? 그죠? 선배님? 선배님 아까 ‘치즈돈가스’ 시켰잖아요?”

“어? 내가 돈가스 먹고 싶어서…”

“아~ 바빠서 주방이 헛갈렸나 보다. 바꾸려면 시간 좀 걸리는 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저기요, 우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아, 아니야! 하지 마! 양 대리, 나 그냥 먹을게.”

아오! 정말 고구마 백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선배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따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속앓이 같은 남자였어요. 결국 참다못한 팀원 하나가 답답함에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선배, 선배는 남자가 왜 그렇게 패기가 없어요?”

“어? 아니 나는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선배, 이진 착한 것도 배려도 아니예요. 그냥 소심한 거지. 여자들은요 리드해 주는 남자 좋아해요. 선배가 이렇게 답답하게 구니까 아직도 솔로! 연애를 못 하시는 거라고요.”

“아이~ 그만해. 선배님 상처받으시겠….”

“응? 나 여자친구 있는데?”

“네에?”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반전이랍니까. 저희는 솔직히 선배가 ‘모태 솔로’일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배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세요? 예뻐요?”

“참내~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한 3년 정도 됐어. 거제도 병원에 업무차 갔다가 만났지. 간호사고 키는 아담해.

첫 키스는 만난 지 일주일 만이었나? 가로등 아래서 했지. 그녀가 아주 저돌적이었어. 자, 사진~”

“우와! 뭐야! 심지어 미인이시네?”

“그러게. 뭐야 선배 완전 능력자였잖아.”

그렇게 저희는 선배를 ‘숨은 고수’로 인정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선배님~ 오늘 회식인데 여자친구분 한 번 부르시죠?”

“어... 그게... 거제도에서 일하잖아. 지금 근무 중이야.”

“그럼 우리 영상통화라도 한 번 시켜줘요. 형수님한테 인사라도 좀 하게.”

“안돼! 지금 일하는 중이라니까.”

“그럼 문자 한 거라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3년 정도 사귀었으면 닭살 멘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생활 침해야! 남의 문자를 왜 봐?”

계속되는 선배의 핑계와 철통 방어.

선배가 잠시 화장실로 피신을 한 사이 촉 좋은 김 대리가 무시무시한 애길 꺼냈습니다.

“저 선배 아무래도 수상해.”

“뭐가?”

“우리도 없는 여자친구를 저 선배가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해. 두고 봐라. 내가 오늘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테니까.”

그날 밤 김 대리는 선배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인사불성으로 만들었고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면 선배의 휴대폰을 확보!

최근 통화 목록에서 ‘내 사랑 하트’를 찾아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우리 얘기?”

“뭐야 뭐야? 받았어? 뭐래?”

“헐! 대박! ‘우리 얘기’래!”

“뭐? 얘기? 뭐야 뭐야! 애칭이야?”

“몰라 몰라~ 기다려봐. 여보세요~ 저, 양 선배님 직장 후배입니다. 선배님이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머! 우리 얘기가 술을 마셨어요? 몸이 약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지금 괜찮아요?”

“네. 근데 몸을 잘 가누질 못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여자친구분이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자친구라뇨?”

“어? 여기 휴대폰에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던데 선배 여자친구 아니세요?”

“아~ 나는 그 아이 엄마입니다. 술 못 먹는 애한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거기 어디예요? 내가 당장 갈게요.”

엄마, 엄마였습니다! ‘내 사랑 하트’는 칠순의 노모. 선배는 마흔의 ‘아기’.

우린 다음 날 선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선배에게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배랑 특히 더 친분이 있던 동료가 말해주더라고요. 퇴근 후 선배가 커피 한잔하자며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고해

성사를 하드립니다.

“사실 나, 여자친구 없어. 나 모태 솔로야. 태어나서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 사십 평생 연애는 커녕 누군가에게 좋아 한다는 말도 한마디 해본 적 없어.”

“근데 왜?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왜 결혼 안 하나, 여자친구는 있냐 없냐 꼬치꼬치 캐묻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다운받아서 여자친구라고 했어. 거제도 간호사라는 것도 다 지어낸 거야. 미안해. 사람들 추궁이 너무 지겨웠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았다는 배신감보다는 짝한 마음이 들더군요.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기엔 축 처진 선배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선배는 “하~ 내 짝은 태어나긴 한 걸까? 이번 주말에도 엄마랑 쭉이나 캐러 가야겠다” 하며 여전히 ‘엄마의 아기’로 지내며 모태 솔로를 유지 중이라네요.

이 뻗속까지 시린 모태 솔로의 겨울 누가 좀 끝내주실 수 없을까요? 누가 제발 우리 선배 좀 구제해 주세요.

여자는 모른다

그리움을 낚다

애청자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왜 남자들이 따뜻한 이불 속을 박차고 나가 칼바람 부는 갯바위에서 달달 떨어져 ‘낙시’라는 고행을 자처하는지! 오늘은 제가 그 남자들의 속이야길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비가 우회전이라는데요?”

“시끄럽다. 내가 이 길을 40년을 다녔어. 여긴 직진이야!”

“아, 아버지! 저번에도 내비 말 안 듣고 국도로 빠졌다가 한 시간 더 걸렸잖아요. 이번엔 말 좀 들으세요, 좀!”

“내비? 이 기계 덩어리가 뭘 알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하고 가지죠? 아버지,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됐다. 시간 없다. 몰때 맞춰야지 무슨 우동이야? 빵이나 하

나 사 와라.”

평생 친구 하나 없이 외골수 황소고집으로 사셨던 아버지. 아버지와 저 역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만 하면 달라집니다.

“아들아, 뜰채.”

“넵! 뜰채 대기!”

“밑밥 쳐라. 지금 고기 들어온다.”

“밑밥 투척 완료! 아버지, 찌 들어갑니다. 챔질 준비.”

“으라차차! 왔다!”

아버지와 열심히 달려가던 바닷가 우리만의 낚시 포인트 갯바위에 도착하는 순간이면 늘 우린 언제 싸웠냐는 듯 손발이 척척 최고의 팀이 되곤 했습니다.

“와~ 아버지, 또 잡으셨어요? 아니, 진짜 이상하네. 같은 장비, 같은 갯바위인데도 늘 아버지의 실력이 한 수 위! 제가 다섯 마리를 잡으면 아버지는 여덟 마리. 제가 3자(30센티미터)를 낚으면 아버지는 4자(40센티미터)를 낚곤 하셨지요.”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갯바위인데도 늘 아버지의 실력이 한 수 위! 제가 다섯 마리를 잡으면 아버지는 여덟 마리. 제가 3자(30센티미터)를 낚으면 아버지는 4자(40센티미터)를 낚곤 하셨지요.

“인마, 짬밥이 다르다. 너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어.”

도대체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 여유로운 표정, 그 편안한 웃음 그게 참 좋았습니다.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아버지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산이자 가장 멋진 스승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강태공

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꼭 차 있던 갯바위 낚시터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파도 소리만 들리고 옆에서 ‘아직 멀었다’ 놀리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신나지 않네.”

헛헛한 마음으로 혼자라도 낚시를 가곤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여보, 바다낚시는 혼자 가는 거 아니래.”

“나는 베테랑이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저번에 뉴스에 나왔잖아. 갑자기 덮친 파도에 사람 끌려갔다고. 안 돼! 당신 저번에도 발 헛디터서 바다에 빠졌었다며.”

40년 만에 다시 내려진 낚시 금지령. 낚시는 가고 싶고 아내를 안심시켜야 하고 저는 궁리 끝에 무뚝뚝한 아들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혹시 이번 주말에 아빠랑 바다 안 갈래? 넌 낚시하기 싫으면 그냥 근처에서 바다 구경이나 해도 되고.”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기대도 안 하고 물었는데 아들은 의외로 “그러죠. 뭐~ 같이 가요” 대답합니다.

아내는 아들까지 낚시에 빠지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면서도 처음으로 떠나는 부자만의 여행이라며 내심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떠난 첫 낚시 여행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섰던 갯바위에 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제 다시 둘이 됐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빨리 뜰채! 다 잡은 고기 놓치겠네.”

아들은 ‘강태공’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이제 저보다 더 낚시에 빠져서는 주말마다 낚시 가자고 저보다 더 성화예요. 아내는 3대째 이게 무슨 일이며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 젊은 애가 주말에 여자를 만나야지 왜 물고기를 못 만나 안달이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년 전 그때 아들이랑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고민이 좀 있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그럼. 남자가 의리가 있지. 고민이 뭔데? 아빠한테 다 털어놔 봐.”

갯바위 위에서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로를 지켜주고 갓 잡은 회 한 점에 라면을 끓여 먹는 ‘동지’입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곁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둘이 아니라 셋이 함께 서 있는 기분. 그리고 어느새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군요.

“아~ 아쉬워. 오늘은 내가 아버지 이길 수 있었는데!”

“어허, 까불지 마라. 너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아내가 들으면 거품 물고 쓰러지겠지만 제 마지막 소원은 아들이 얼른 장가가서 ‘4대 강태공’이 태어나는 겁니다. 반대하는 아내의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들과 함께 갯바위로 갈 겁니다. 여자는 모릅니다. 남자들이 낚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함께 낚는 건 그리움과 추억, 세월이라는 사실어요.

사랑 사랑 사랑

100만 원짜리 밀크리

애청자

어느 날 아내가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더군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한테 걸린 것 같아!”

평소에도 부모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나서던 사람이
라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당하셨더라고요.

제 장인어른은 올해 아흔다섯이십니다. 평생 해로하던 장모
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시골에서 텃밭과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 농사꾼 할아버지신데요.
장인어른이 예전부터 ‘종친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산소를
꾸미거나 종친회 행사에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시골에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도 꼭 참석하실 만큼 종친회 일을
중시하셨고, 천성적으로 워낙 사람을 좋아하셔서 사람 사이

의 관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종친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친회에서 친분이 생긴 예순 정도 된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대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내 아내 보낸 지도 얼마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가?”

하지만 상대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통에 마음 약한 장인어른이 100만 원을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이 한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장인어른이 전화해도 계속 ‘다음 달에 주겠다, 보름 뒤엔 꼭 드리겠다’ 말뿐이더랍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갔고 그동안 혼자 속만 끓이던 장인어른이 결국 딸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으신 겁니다. 제 생각으론 당장 종친회에 달려가서 난리를 한번 치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해서 따지러 찾아가셨을 법도 한데 장인어른은 ‘친척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 오셨던 겁니다.

아내가 그분과 통화해봤지만 꼭 갚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약속일에 입금은 안 됐고 그나마 잘 연결되던 전화 통화마저 끊겨버렸죠. 알아보니 그 어르신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계속 미루면서 상대가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수법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상습범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선한 노인분들의 마음을 희롱하는 그 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장 주변에 법무사분께 조언을 구해 소송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말리더군요.

“여보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나는 그 돈보다도 친척 간에 이런 일로 엮여서 서로 얼굴 붉히고 구설수에 오르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좋아하던 종친회 발길 뚝 끊으실 텐데 나는 그게 더 걱정이야.”

며칠을 고민하던 아내는 그 집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를 알아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미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기 전적으로 그 어르신은 유명 인사였고, 그때마다 아들이 나서서 대신 사죄하고 해결을 해왔다 하더군요. 목사님을 통해 그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주문부터 할까요? 여기 따뜻한 밀크티 두 잔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런 일을… 제가 어떻게든 대신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 형편도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쪽 아버님께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런 남자에게 아내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드님한테 돈 받자고 연락드린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시니

까 그 100만 원 제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아드님이 그걸 그쪽 아버님 대신 갚는 것처럼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달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우리 아버지 마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아드님과 장인어른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렸고 장인어른은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음도 달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도 만들지 않고 말이죠. 굳이 피해가 있다면 우리 집 통장 잔고 정도.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두 잔에 100만 원, 한잔에 50만 원짜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밀크티를 마신 셈이지요. 하지만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의 그 선택을 누가 감히 따따부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내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돌아가고 답답한 길을 가도 정도를 걸어가며 아내는 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결정을 해왔고 그게 옳았음을 지금도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더디 가도 함께 가고 부족해도 나누고 배려하는 삶. 속세적인 풍성함이나 명예를 물려주지는 못해도 아내의 그런 당당한 삶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배우고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답답할 만큼 정직한 제 아내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내여, 언제나 행복하시길! 당신의 그 귀한 가치관이 옳다는 걸 맘껏 증명하시길! 내가 당신을 믿고!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떨리는 여행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보통의 관광 코스로는 갈 수 없는 중국 소수민족의 고장을 다녔건만, 어찌 까마득한 옛일만 같다. 워낙 넓은 땅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흩어져 살다 보니 깊은 산속에서 나름 자급자족하는 이들은 파악도 안 된다. 그간의 경험으로 중국은 청결하지 못하고 불편한 화장실,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무심한 태도. 이런 나의 편견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만큼 중국이 달라졌다.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광저우에서 계림까지는 고속열차를 이용했다. 우와! 그 엄청난 크기의 광저우역은 술한 사람들 구경에 시간이 획 지났다. ‘광저우-계림-조흥-개리-광덕-귀양-직금동-청암고진-귀양-황과수-안순-홍의-나평-상해-인천’ 이런 코스로 구경하자니 차로 이동하기가 기본 3~4시간이었다. 넓은 땅임을 실감했다. 이동 중에 고도 낮은 곳이 해발 1,200m 정도였으니까 카르스트 지형의 곳곳을 누빈 셈이다.

귀주성 쪽 음식은 독특한 맛과 향이 있다는데 입에 잘 맞

왔고 유기농이라 달고도 맛났다. 채소 반찬을 많이 맛보았다. 등근 원탁의 가운데가 빙빙 돌아가고 열댓 가지 요리를 두루 맛보았다.

첫날밤 자고 계림의 이강 유람선 타러 가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가져간 우비와 우산이 쓸모 있었다. 유람선에서 비를 맞으니 중국의 수목화가 따로 없었다. 눈 돌리는 곳마다 그림이었다.

그날 비 개인 저녁, 장예모 감독의 ‘인상유삼저’ 쇼를 관람했는데 물 위의 공연이 독특했다. 우리의 최진사 닥 셋째 딸과 비슷한 ‘유씨 닥 셋째 딸’이란 제목이다.

조흥동족마을의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개 마을의 평화롭고 소소한 일상을 보고 개리로 이동해 묘족 자치구로 넘어갔다. 그곳에서의 민속 무용 공연은 마을의 고참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서 관록 있어 보였다.

가장 고생한 코스는 아시아 최고라는 직금동 동굴에서인데 입구와 출구가 달라 발 디디면 끝까지 가야만 나올 수 있었다. 그 높이와 넓이가 어마무시했고 네 겹 얇은 셔츠 위에 입은 패딩에서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다 해봤다. 이럴 수가! 우리 부부에게는 해병대 특별 훈련급이

었다.

숙소도 좋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안락함을 누릴 시간이 없었다. 건느라 너털너털해진 몸으로 저녁 먹고 들어와 씻고 그대로 뺨고 새벽에 아침 먹고 짐 싸서 또 떠나느라 그랬다. 워낙 넓은 곳을 다니려니 이동시간이 길었다. 한곳에 머물며 쉬는 걸 좋아하는 남편에겐 무리였지만 워낙 두루 구경하기 좋아하는 내겐 괜찮았다.

여행은 날씨가 도와주고 무릎이 멀쩡해야 즐긴다는 결론! 가슴이 떨리는데 무릎도 함께 떨리면 무리라는 얘기. 오랜만의 휴가는 여행의 설렘, 도전을 접גע끔 만들었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90% 넓이의 유채밭과 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루는 만봉림 풍경구를 마지막으로 일정은 일단락 지었다.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운 압도적 넓이의 땅덩이, 14억 인구, 그 땅의 자원들, 변화하는 중국, 14억 인구 중 뛰어난 각 분야의 재원들, 깔끔하게 관리되는 모든 관광지들. 결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보호와 관리하는 이들의 부지런함이 돋보였다. 중국 여행에선 오토바이와 자동차 조심이 우선이다. 다 전기차라 이동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말이다.

양심고백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둘 이상 모이면 아마 코스피에 대해, 주식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한 번쯤 나눠 봤을 것이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모라는 용어 아래 나만 안 하고 있는 건가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자고 나면 치솟는 지표를 보였기 때문이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귀가 얇았다.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했고 신경 쓰였다. 이게 좋아 보인다, 저게 괜찮은 거 같은데 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흔들렸다. 그런 내가 역시 주식 투자를 안 할 수 없었다. 온 국민이 들쭉이는데 내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내 나이가 얼마인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 아닌가.

수년 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지인이 자신의 주

식계좌를 직접 보여 준 적이 있었다.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당시 10억을 만들어 놓은 계좌였다. 당연히 눈이 휘둥그레졌고 비결을 물었다. 그 비결은 두 가지. 첫째, 주식에 관해 공부할 것.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그 주주가 되고 싶다는 매력을 느꼈을 때 매수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심부리지 않는다. 수익률을 5% 혹은 10%로 정해놓고 그만큼 달성하면 자동 매도를 걸어둔다고 했다. 그것보다 더 올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고 그것보다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저 기다리면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명심했다.

그런 비결을 듣고 난 알팍한 수를 썼다. 주식 공부를 하기보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런 기업이라면 나 말고 다른 이들이 이미 공부와 검증끝냈을 거란 생각에. 그야말로 질주하는 말의 등에 올라탔다. 어라 이것 봐라? 진짜 오르네? 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올라 있고, 또 어제보다 더 더. 그야말로 도파민이 터졌다. 이미 주식 고수에게 들었던 비결은 새까맣게 잊은 지 오래. 수익률이 오를수록 기쁨이 배가되기보단 투자금을 더 넣지 못한 아쉬움이 커졌다. 그때 이만큼 넣었으면 지금 얼마야!

제목이 양심고백인 건 하필 여성시대 방송 시간이 오전 9시 5분인 탓도 있다. 그렇다. 생방송을 앞두고 주식 창을 안 볼 수 없었다. 방송 중간에 광고가 나갈 때도 주식 창을 안 볼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담당 피디가 “오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니 주식이 올랐나 봐요”라고 말을 건넸을까. 피디가 그렇게 느낀 것에 아예 아니라고는 말 못 하겠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화살표에 내 심장이 요동쳤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질주하던 주식이라는 말도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나도 정신이 들었다. 그래 방송 중에 이건 아니지. 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여성시대 방송 중에 절대 주식 창을 보지 않겠다고. 이제 장투의 길을 갈 터이니 방송이 끝나고 주식 창을 보겠다고 말이다. 올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률을 웃으며 공개할 수 있길 바란다.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내가 원하던 i-ONE의 등장

ALL NEW i-ONE Bank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7972호(2025.11.21) 유효기간(2026.11.20) · 자세한 문이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